

‘한전 영향’ 지역 상장법인 시총 줄었다

7월 31조4천114억 전월比 2.7% ↓

유가증권 시총 증가액 상위 1-3위

금호타이어·광주신세계·조선내화

지난 7월 광주·전남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전월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전월 대비 4천815억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7월 코스닥시장본부 광주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7월 광주·전남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31조4천1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2.7% (8천850억원) 감소한 수치다.

투자자 거래대금은 2조7천246억원으로 전월 대비 0.5% (172억원) 감소했다. 전체투자자의 거래대금 대비 광주전남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은 0.7%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2조6천537억원으로 전월 대비 2.9% 증가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1조650억원으로 7.9% 감소했다.

전체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대비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의 비중은 1.0%로 전월 대비 0.1%p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2.6% (7천978억원) 감소한 29조7천471억원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5.0% (872억원) 감소한 1조6천642억원으로 집계됐다.

계됐다.

지역 상장법인 시가총액 증가액 유가증권 상위 3개 종목은 금호타이어, 광주신세계, 조선내화다.

금호타이어는 시총 1조3천372억원으로 전월 대비 431억원 증가했다. 광주신세계는 시총 2천507억원으로 전월 대비 123억원 늘었다. 조선내화는 시총 1천7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8억원 증가했다.

코스닥에서는 시총 증가액 1위 강동씨엔엘, 2위 와토스코리아, 3위 서산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시동향을 살펴보면 7월말 코스피는 3,245.44p로 전월 대비 173.74p (5.7%) 증가했다.

월초 코스피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 등으로 전기전자주 및 금융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3,200선을 상회했다.

이후 한미 관세협상 경계감, 국내 세제 개편안 우려로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과 주요국간 무역협상 및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반도체 관련주 중심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다.

7월말 전체시장 (외국주권, 주식예탁증권 제외)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5.7% 증가한 3천76조원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2천661조원으로 전월 대비 6.0%, 코스닥시장은 414조원으로 전월 대비 3.7% 각각 증가했다. /임채만 기자



광주은행은 7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말복 맞이 삼계탕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말복 맞이 삼계탕 배식 봉사

지역 어르신 보양식 1천400인분 대접

광주은행이 9일 말복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다.

광주은행은 7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삼계탕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가고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말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영양 부족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한 삼계탕 1천400인분을 정성스럽게 대접했다.

이날 배식 봉사활동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대학생 홍보대사 30여명이

함께했으며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9명이 동참해 뜻깊은 봉사의 의미를 나눴다.

삼계탕 배식 후에는 부채 등 나눔 물품을 전달하며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라는 인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광주은행은 2015년부터 매년 여름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혹서기 지역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전 영업점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이며 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신수정 의장은 "폭염과 폭우로 모두가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힘이 중요하다"며 "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aT, 집중호우 피해 성금 1천180만원 기부

수해 복구·이재민 지원 임직원 동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7일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천180만원을 네이버 기부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의 자발적 모금 참여로 마련된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의 현장 복구와 이재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aT는 성금 기부를 비롯해 수해 복구 활동에

도 힘쓰고 있다.

본사와 지역본부 직원 60여명이 나주, 무안, 홍성 등 피해 농가를 찾아 토사 제거, 침수 가재 도구 정리, 시설 복구 등을 도우며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태기 위해 임직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
실외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3시~4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 중 규칙적 물 섭취**
5시~6시 **작업장소 그늘 마련,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7시~8시 **무더위 시간(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우정청-전남사회복지協, 공익보험 무료 가입 업무협약

취약계층 대상 '행복보험' 지원

전남지방우정청은 7일 "전남 전남도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익보험인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 가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은 보험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1만원을 한전 광주전남본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개인별 2-3만 원)을 우체국 공익재단에서 부담한다.

이동정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익형 보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역 내 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훈훈한 정이있는
광양5일시장, 목곡5일시장,
진상5일시장, 상설시장

정기시장

- 광양5일시장 - 매월 1일, 6일로 끝나는 날
- 목곡5일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진상5일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상설시장

- 광양매일시장
- 광영상설시장
- 중마시장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양시**
Gwangyang

광고문의 : 062)650-2099

CMYK